

# 비로소 앞당겨질 '文化의 世紀'

## 李御寧 초대 문화부장관에게 듣는다



**출판과 도서관의 관계를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로  
비유하는 李장관은  
도서관을 일러 문화 혹은  
문화행정의 '발'이라고  
표현한다.  
문화현장에 접근하는  
될 수 있는 발이 없고서  
문화행정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李장관은  
국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여령장관

신설 문화부에 李御寧장관이 취임할 당시 한 문화계 인사는 어떤 글에서 “문화부가 창설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첫 장관에 달리 오염되지 않은 문예계 인사가 임명되었다는 것은 90년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계를 위해 그 상징으로나 실체에 있어서나 매우 반가운 일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다. 같은 글에서 그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너무 큰 요구와 새 장관의 참신한 의욕은 권위주의적 관료체계의 두터운 타성의 벽에 부딪칠지도 모른다”며 우려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취임한 지 한달을 갓 넘긴 지난 14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난 李장관은, 하지만 그같은 우려가 아직은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키기에 족할 만큼 자신에 차 있었다. 취임 당시 품었던 의욕과 구상이 실제적인 '일'에 부대끼면서 혹 변질된 부분은 없느냐는 첫 질문에 대해 李장관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내 목표”라고 말했다. “사소한 결가지들이라든 몰라도, 애초에 품었던 생각의 기본줄기만큼은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李장관의 말이였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李장관이 떠나갈 문화행정의 기본줄기는

90년도 문화부업무보고에 잘 드러나 있다. 문화행정에 대한 李장관의 평소 지론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이 자료에 따르면, 우선 90년대는 ‘새로운 문화의 세기’로써 그동안 정치와 경제의 크고 급한 문제들에 밀려 뒷전에서 소외돼 왔던 문화의 복권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정신주의의 풍도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한 시책으로 李장관은 전통문화, 생활문화, 고급문화의 3대영역에 걸쳐 ① 한국인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 ② 국민의 문화향수권 및 문화참여권 신장 ③ 다양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한 創作力 진흥 ④ 한국문화권의 확산을 통한 우리문화의 세계화 지향 ⑤ 미래 문화의 주역이 될 한국문화 창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같은 문화시책의 실천에 있어 종래와 같은 官주도는 피하겠다는 李장관의 의지표명이다. 당연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李장관은 고수하려 한다.

“사실 제 개인이 유능하고 무능하고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행정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입니다. 문화부와 국민들 상호간의 문턱을 없애고,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는 데 힘쓸 작정입니다. 제 입장에선 문화계로부터 여러 참신한 착상들을 얻어 일할 수 있는 마당을 제공받고 싶고, 또 역으로 문화인들에게는 마음껏 뜻을 펼 수 있는 명석을 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선지 李장관이 문화행정지표로 제시한 ‘三不’ 및 ‘三可’ 원칙은 그 수사학의 절묘함만큼이나 의미깊다. ‘문턱’없이 일하기, ‘생색’

내지 않고 일하기, ‘사심’없이 일하기의 三不과, 마른 바위에 생명의 ‘이끼’ 입히기, 문화우물터에 하나의 ‘두레박’ 놓기, 국민의 작은 심부름꾼 ‘부지깽이’ 되기의 三可가 그것인데, 이같은 작은 일부터의 성실한 실천을 통해 “문화부가 생기니까 무엇이 달라져도 달라졌구나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내 소박한 욕심”이라고 李장관은 밝힌다.

**“문화부는 모든 틀을 새로 만들어야”**

그 ‘소박한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 李장관이 제시하는 문화정책은 소문난 ‘아이디어뱅크’다운 참신성과 다양성이 돋보인다. 李장관 스스로 “다른 부처의 경우 역대 장관이 있고 일의 모형이 있지만 문화부는 모든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말하면서도, 그같은 부담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할 만큼 대단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가령, 한국인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제시된 「韓國象徵神話辭典」 편찬계획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 李장관에 따르면 이 사전은 “민속·문학·역사 등 인접학문에 나타난 한국어의 상징적 의미를 수록, 우리 문화의 원형을 발굴함으로써 평면적이고 표층적으로 기술된 종래의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 등을 심층화한다”는 것인데, 일본 및 중국 등과의 제휴를 통해 우리 민족문화를 동양문화권과의 관련문맥 속에서 재조명하게 되리라고.

한편으로 李장관은 종래의 문화정책이 문화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 그 내용물의 개발에는 소홀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한손에 쥘 수 있는 작은 책, 그러나 감동은 한아름으로도 부족합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하늘 뱀새가 있는  
詩

• 값 2,000원



박희준 시인, 그는 지금 더 큰 삶 더 큰 詩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그가 자신만의 빛깔을 담아 써 내려간 75편의 시 속에서 우리는 자연과 자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되는 아름다운 화해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거인들이 사는 나라

열린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들과 다시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들에게

• 값 2,000원



신형건은 생맥퀴베리의 (어린왕자)와 같은 동심을 가진 시인이다. 그의 시는 죄에 물들기 이전의 가장 순수한 삶의 모습의 원형이며, 진정한 자아찾기의 즐거운 미로여행이다.

허공에 짐 하나 짊어놓고

윤소암 스님의 禪詩集

• 값 2,000원



관념의 미로에 빠지기 쉬운 현대인을 위한 성찰과 직관의 詩!

전화 720-5990~1

**진선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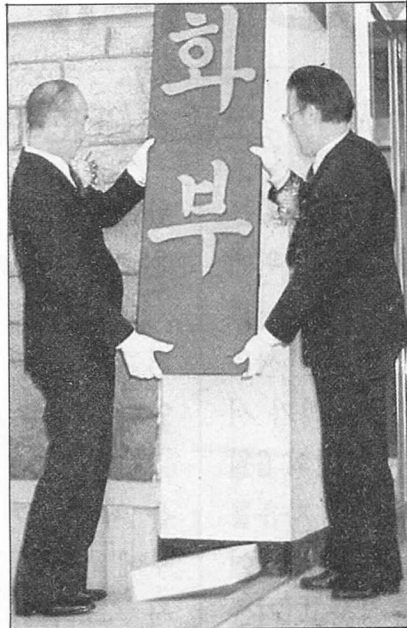
팩시밀리 739-2129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영역의 확대를 당면과제로 꼽는데, 이른바 '생활문화' 개념의 제창은 그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하다. 예컨대 문공부 시절에는 없던 생활문화국의 설치가 "지금까지의 전문예술인 위주의 문화행정에서 벗어나 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는李장관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생활문화의 의식이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 “책에는 과소비가 있을 수 없다”

1960년대 초반 낙양의 지가를 올렸던 「흙속에 저 바람 속에」를 비롯한 술한 명저의 저자로서, 「문학사상」의 편집인으로서, 그리고 탁월한 출판기획가로도 잘 알려진李장관은 출판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출판계 일각에선 “李장관이 출판을 너무 속속들이 잘 알아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할 정도인데, 그런李장관이 출판행정과 관련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도서관 문제. 현재 그 업무관장을 놓고 문교부와 줄다리기중인 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 항간에선李장관이 그다지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관측도 있지만, 한마디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李장관의 말이다.

“문화부라고 만들어 놓았더니 처음 벌이는 일이 고작 정부부처간의 싸움질이라고 비쳐진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럴 바엔 관두겠다는 것이지, 제 진의는 결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반드시 문화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화행정의 한 중심부인 어문출판과 공공도서관은 손바닥과 손등



문화부 현판식 풍경. (사진 공보처)

의 관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어李장관은 공공도서관은 문화원 등과 함께 문화 혹은 문화행정의 ‘발’이라고 표현하면서, “도대체 뭘 수 있는 발이 없고서야 문화행정이 무슨 문화를 이끌어내겠느냐”고 반문한다.

더불어李장관은 도서관의 경우 책을 몇 권 소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각 공공도서관의 행정체제가 전산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같은 맥락에서李장관은 서점들도 다목적문화센터화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임을 밝히는 데, 이는 소위 ‘작은 미술관’ ‘움직이는 박물관’

운동의 추진과 함께 국민의 문화향수권 및 참여권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획일적인 대집단을 지양하고 상호대화와 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너와 나’의 2인칭 소집단문화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李장관의 말이다.

이와 함께李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 가운데 하나가 도서권제도의 도입. “책에는 과소비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李장관은 현재 공정거래법에 묶여 있는 상품권 발행을 도서권에 관한 한 예외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李장관은 좋은 책의 출간을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광고료 지원을 제도화할 복안을 밝히는가 하면, 90년대 출판계의 최대 숙원사업이라 할 ‘출판도시’ 건설에도 적극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 “문화부가 아니라 문화가 앞서나가야”

그러나 이 모든 시책과 사업계획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계의 역량결집이 전제되어야 함을李장관은 지적한다. 취임한달여 동안 공식일정만으로도 무려 80여팀에 이르는 문화계 인사들을 만났다는李장관은 문화부에 대한 그들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것 같아 “부담도 되고 피곤하기도 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문화부나 문화부장관이 앞서나갈 것이 아니라 문화가 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있는 듯 없는 듯 뒷전에 숨어서 일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느끼지는 못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문화부장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이야 제가 처음이라 마스크를 타지만, 장차는 일반국민이 문화부장관 이름도 모르게 되는 것이 우리 문화를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꼭 맞을 경우 그 존재를 알게 되는 허리띠 같은 것이 문화부장관이란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1934년 충남 아산 태생으로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던 1956년 「우상의 파괴」란 평론으로 문단에 데뷔한李장관은 초기에는 신랄한 문장의 문학평론가로, 그리고 최근에 오면서는 「한국, 한국인」 「축소지향의 일본인」 등에서 보는 것 같은 탁월한 문명비평가의 면모로서 잘 알려져 있다. “순수문화계와 대학강단에 머문 사람도 작은 힘이지만 새로운 문화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화부장관으로 입각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李장관’보다는 ‘李교수’의 인상이 더 짙다. 그러나李교수에서李장관으로의 역할전이가 결코 어색해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李장관이 다시李교수로 되돌아갈 때까지만 한정적으로 미뤄두고 있는 일이 있다.

“이화여대 부설 기호학연구소에서 진행했던 한국문화에 대한 기호학적 해석작업의 마무리, 「축소지향의 일본인」에 버금갈 만한 「미국론」의 저술, 그리고 가칭 ‘문학공간론’에 대한 연구를 장차의 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철주 부장

## “젊은 편집인을 찾습니다.”

- 약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능동적으로 일하실 분
- 언제나 책임있는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
- 디자인을 전공했거나 일러스트 감각이 뛰어난 분
- 편집 디자인에 몇 년 경험이 있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력서(사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자기 소개서, 경력이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3월 15일까지 우송해 주십시오. 면접 일자리는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하겠습니다.

110-220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161번지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1 팩시밀리 739-2129